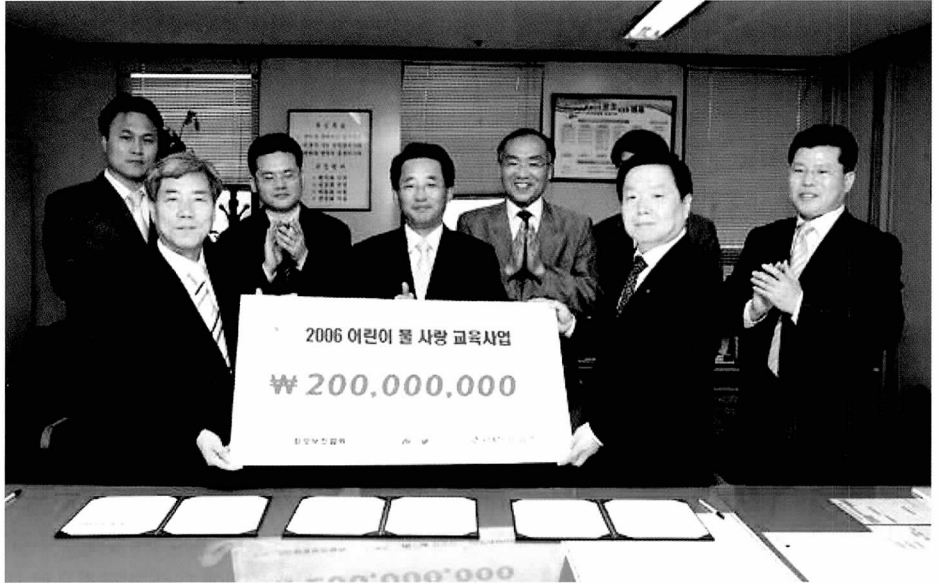


# 환경부 '어린이 물 사랑 교육프로그램' 추진

## 롯데칠성음료(주) 등과 공동추진...연간 1만 3천여명 교육



▲ 어린이 물 사랑 교육프로그램 체결식

**환** 경부와 환경보전협회, 롯데칠성음료(주)는 공동으로 '어린이 물 사랑 교육프로그램'을 금년 10월부터 2009년 9월까지 3년 동안 추진하기로 약정을 체결했다.

환경보전협회는 초등학교·민간단체와 공동으로 '어린이 물 사랑 교육프로그램'을 수행하고 어린이 물 사랑 교재를 개발한다. 어린이 물 사랑 교재는 어린이들이 재미있게 물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, 실내외에서 다양하게 체험할 수 있도록 물에 관한 지식영역과 탐구·체험·놀이 등 활동영역으로 나누어 개발되며, 개발비용으로 7천만원을 투입한다.

롯데칠성음료(주)는 교육에 필요한 총 6억원의 예산을 매년 2억원씩 지원, 환경부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행정지원을 한다.

'어린이 물 사랑 교육프로그램'을 수행할 15개 초등학교와 14개 민간단체는 올해 10월 2일부터 10월 31까지 환경부, 환경 보전협회, 롯데칠성음료(주)의 홈페이지를 통해 공모한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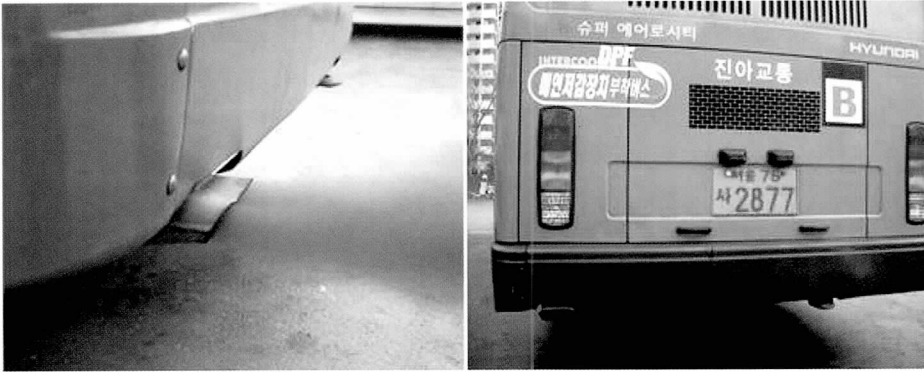
교육기관으로 선정된 초등학교에는 각 2백만원, 민간단체에는 각 5백만원을 지원하는 등 총 1억원이 지원되어

연간 1만여명을 교육하게 된다.

환경부는 2000년부터 각급 학교와 민간단체에 연간 12억원의 예산을 지원하여 청소년에게 환경체험교육을 실시해 청소년으로부터 좋은 호응을 받고 있다. ◀



# 수도권 경유차 매연저감장치 15만대 부착



▲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전

▲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후

서울과 인천, 경기 등 수도권내 노후 경유차(배출가스 보증기간이 지난 자동차)에 대한 배출가스 저감장치(DPF, pDPF, DOC) 부착, LPG엔진 개조 및 조기폐차 사업 등이 대폭 확대된다.

수도권대기환경청에 따르면 저감장치 부착사업 2007년도 예산은 전년대비 22% 증액된 총 4,452억원(국고 2,226억원, 지방비 2,226억원)으로 15만 여대의 노후 경유차량을 대상으로 저감장치 부착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.

매연저감 장치는 2004~2005년 2년동안 4만4천여대에 부착됐고, 지난해에는 계획(12만5천대) 대비 97%에 이르는 12만1대에 부착돼 지금까지 총 16만5천대의 배출가스 저감장치가 보급됐다.

환경부는 저감장치 부착시 제작사 실명제 도입을 검토, 지자체 차원의 표기(예:맑은서울) 외에 장치 제작사명이 표시된 표지를 부착해 제작사의 사후관리 책임을 강화할 방침이다.

또한 배출가스 매연 농도가 10%를 초과하는 차량은 연료의 황 함량을 분석해 연료의 적정 사용 여부를 확인하고, 문제점이 확인된 차량은 국립환경과학원에 저감장치 자체의 결함 여부 확인검사를 요청할 예정이다.

정상 작동하는 장치의 경우에도 정기적인 클리닝을 통해 장치가 지속적으로 정상 작동될 수 있도록 제작사를 독려하고, 체계적인 사후관리에도 불구하고 장치가 정상화되지 않는 차량의 경우에는 저감장치를 반납토록 할 예정이다.

한편 저감장치 부착 차량 소유자는 환경개선부담금과 정밀·수시검사가 면제(3년간)되고, 검사 미수검시나 부착·개조 의무 미이행시에는 60만원 이하의 과태료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. ◀

[문의 : 수도권대기환경청 자동차관리과, ☎031)481-1380]

